

대학의 상황과 교수의 사명

金 均 鎭

(延世大 神學科)

“절대적으로 부족한 강의실과 열악한 교육시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는가. ‘솔직히 말해 많은 학생들이 듣는 교양수업에 들어가면 처음 10~20분 정도는 집중하여 들으려 하지만, 잘 들리지도 않아 그냥 딴 생각을 하거나 신문을 읽거나 열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수업과는 상관없는 일로 시간을 배우는 것이 보통이다. 앞에 계신 교수님도 대부분 학생들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강의를 진행하시고 그러한 수강태도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겨버리시는 것 같다.’는 이모양(영문·4)의 말에서 교양강의는 진정한 의미의 인문교육의 장이 아니라 한 시간 정도 자리를 채우고 억지로 앉아 참을성을 연마하는 장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이 기사는 지난 주 우리나라 모 대학의 신문에 게재된 내용이다. 기사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한편 일부 학생들이 수업에 임하는 자세에는, 강의내용도 몇 년 전부터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을 뿐, 별다른 것이 없다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도 보인다. 이는 몇 년이 지나도록 글자 하나 바뀌지 않는 일부 과목 강의 커리에 회의론을 느끼는 학생들의 소극적인 저항이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거나 강의내용 중 틀린 것이 있어도 질문하는 경우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반면, 수업이 끝나기도 전에 출석 체크만 마치고 교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학생의 모습은 어느 강의실에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교수도 학생을 포기하고 학생도 교수를 포기한 채 서로서로 거리를 두고 적당히 ‘뺏주기’식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 기사는 대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수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다. “교수도 학생을 포기하고 학생도 교수를 포기한 채 서로서로 거리를 두고 적당히 ‘뺏주기’식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과연 학생들은 우리 교수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교수들은 무엇을 그들에게 줄 수 있으며 학생들은 교수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물론 위의 기사 내용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전모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것은 일부의 현실에 불과하리라고 자신을 위로해 본다. 그러나 大學教育의 落後性에 대한 비판을 우리는 벌써 오래 전부터 들어 왔다. 교수들이 ‘몇 년이 지나도록 글자 하나 바뀌지 않는’ 강의를 한다는 비판에 우리는 익숙해 있다. 왜 교수들이 좀더 연구하지 않느냐, 왜 강의의 질을 높이지 않느냐는 비판은

우리들의 귀에 익은 이야기다. 그래서 요즘 교수들의 강의를 평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리하여 강의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이제 자칫하면 교수들의 강의를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

얼마 전 미국의 모 언론지가 세계 500개 명문대학의 목록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목록에는 우리나라 대학의 이름이 하나도 없었다. 세계 500등 안에 드는 대학이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대학에 대한 비판과 강의평가제에 대하여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한편으로 수긍하면서도 다른 한편 딱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대학교육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개의 경우 비판은 하지만, 왜 대학교육이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 原因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한 신문기사도 마찬가지다. 이 신문기사는 강의에 임하는 교수들의 태도와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거의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여 대학교수들만 도마 위에 올려 놓고 칼질을 하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이 교수들의 책임인가? 교수들만 게으르고 소신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육이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물론 대학교육을 개혁하려는 교수들의 의지가 약한 것도 문제의 한 원인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질은 단순히 교수들의 의지나 마음의 자세에 따라 간단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교육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관련된 제반 조건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제반 조건과 상황은 개선하지 않으면서 강의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교수들만 무사발로 만들어 버릴겠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이다. 교수들이 처한 대학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교수들에게서 세계 최고 수준의 강의를 요구한다.

개선되어야 할 조건들 가운데 예를 들면 주당 강의시간 수가 외국 수준으로 줄어들어야 한다. 최소한 12시간 내지 15시간, 심지어 18시간의 주당 강의시간 수가 외국과 같이 주당 6시간 정도로 줄어들어야 한다. 독일 대학의 경우, 겨울학기에는 성탄절 휴가로 2주간 정도 쉰다. 여름학기에는 부활절 휴가로 2주간 정도 쉰다. 이러한 휴가 제도가 우리에게는 없다. 매 학기 중간에 중간고사 기간이 있어서 좀 쉴 수 있지만 시험감독, 채점, 대학원 논문 예심 등으로 완전히 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외국의 교수들에게는 최소한 1, 2명의 유급조교는 물론 시간제 조교들이 있다. 대학원 졸업논문, 학부 학생들의 리포트 체크, 채점, 연구자로 조사 및 수집, 원고 정리 및 교정 등의 잡무를 이들 조교들이 처리한다. 그래서 교수들이 최대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수들에게 유급조교란 생소한 개념이다. 기껏해야 대학원 재학생이 조교로 배당된다. 대학원 재학생은 그의 능력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으며 대우도 외국의 유급조교에 비하여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교수를 크게 도울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수들은 외국의 유급조교들이 처리하는 많은 일들을 자신이 처리한다. 대학원 졸업논문 지도도 교수 자신이 하는 수밖에 없다.

열악한 교육시설도 장애의 요인이다. 세계 유명 대학들의 도서관은 중앙도서관 외에 각 분야별로 독립되어 있다. 교수들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교수들은 연구에 필요한 도서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에는 중앙도서관만 있다. 그래서 교수가 필요로 하는 도서가 도서관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찾아 빌려 오는 데에는 최소한 30분 내지 4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강의실의 시설도 외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다. 수십 년

전 일제시대에 사용하던 강의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강의실에는 마이크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향을 지르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재정난으로 말미암은 강의실 및 연구실 부족, 특히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 부족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의 분위기도 대학교육 담당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체념에 빠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소수의 사람들이 정당한 노력 없이 짧은 시간에 큰 부를 축적하며 공직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치부하는 사회 분위기는 모든 국민들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 여기서 교수들만 예외일 수 없었다. 교수들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가진 변호사나 개인병원 의사들이 교수들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는 불의한 제도 속에서 교수들만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자기의 직업에 충실할 것을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권력층에 속한 인물들은 물론 권력층과 관련된 인물들의 부패와 불의는 국민에게 “필테로 되어라”는 좌절감을 심어주며, 혼란과 무절서와 직업에 있어서의 적당주의를 초래한다. 여기서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만 예외이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외적 원인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제의 원인은 외적인 데에도 있지만 대학 내부에도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수들은 자신의 학문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 나라의 다음 세대의 주인들이 될 학생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했는지 자자 자기 자신에게 물어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에 비하여 외적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은 학생들도 대개 알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들을 가르치는 스승들이 최소한 인간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기를 기대하지 않는가? 외국대학처럼 최첨단의 학문과 지식을 그들에게 주지 못할지라도 삶에의 성실성과 직업에 대한 책임의식을 그들은 기대하지 않는가? 이것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 요소가 아닐까?

현대인들은 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장 가치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많이 소유해야 삶을 보장할 수 있고 더욱더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자기의 힘을 과시할 수 있다. 소유와 소비와 힘의 과시가 현대인들의 가치를 형성한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유하며 소유한 것을 향유하고 자기를 과시한다. 점점 더 크고 빈척거리는 것, 보다 더 비싼 것을 선호한다.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벌고 출세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교수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使命感과 삶에의 誠實性이라 생각된다. 모든 직업이 그러하지만 교수라는 직업도 단순히 돈을 벌거나 출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않다. 그들은 이 나라의 학문을 발전시키고 다음 세대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학생들에게 올바른 精神을 심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나라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학문이 있어야 하는 동시에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정신이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인물이 바로 대학의 교수들이다. 학생들은 교수에게서 단순히 지식만 배우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의 삶에 성실한 한 인간의 모습을 교수에게서 기대한다. 이러한 그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선생은 있으나, 스승은 없다.”는 말이 들리게 된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다. 새 정부와 함께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외적 요인들이 점차 극복되는 동시에 각자가 맡은 사명에 충실하는 새로운 사회의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